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고양의정소식

2005. 8

기획특집-풀뿌리 민주주의를 찾아서
브리핑-상임위원회 활동
말-의원 칼럼
문화인 생각-김연수
포커스-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고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①북한산

창간호

CONTENTS



표지사진

KINTEX 모터쇼 관람 - 동북아 국제무역전시의 허브 한국국제전시시장의 개장기념 행사로 열린 서울모터쇼에는 110만명의 관람객들이 모여 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 01 창간사
- 02 축사
- 0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06 기획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를 찾아서
- 08 브리핑 - 상임위원회 활동
- 13 미니인터뷰 - 이재황
- 14 문화인 생각 - 김연수
- 16 포커스 -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 18 의정 중계석
- 21 말 - 시의원 칼럼

- 25 초점 - KINTEX 개장과 함께 한국 전시산업의 판도가 바뀐다
- 27 의원 동정
- 31 문화산책
- 32 고양시 나들이 - 고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① 북한산
- 34 시민의 소리
- 36 지금 고양시는
- 38 의원소개
- 40 편집후기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고양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2006년 7월 30일 통권 제1호 발행인 고양시의회 의장 권봉원 편집장 이재황 편집위원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구상희 김진영 김미정 편집부 김충욱 조재원 발행처 고양시의회 ·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의회 사무국 홈페이지 www.goyangcouncil.go.kr 전화번호 961-2523 팩스 967-8045 편집 · 인쇄 고양사람들

창간사

시민의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권 봉 원
고양시의회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폭을 넓히고,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정전반에 대한 소개와 의정활동 상황을 보다 자세히 전하고자 “고양의정소식지”를 창간하였습니다.

이 소식지 창간으로 주민이 선택하신 지역의 대표가 지방의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식지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걸러서 의정활동에 보다 투명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의정소식지”가 시민과 고양시의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시민 곁에 한층 다가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기를



강 현 석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개원 이후 뜻 깊은 「고양의정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됨을 90만 고양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시의회는 1991년 초대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14여 년 간 고양시민의 입과 귀가 되어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대의 기관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열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선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간 시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몫을 해 오신 결과, 우리 시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나무가 울창한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체험의 공유가 중요한,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최근 시민문화의식의 성숙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소식지의 발간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의정소식지의 발간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푸른 문화 환경의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혜가 모아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고양의정소식지 창간호」가 우리시의 현재를 짚어 보며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권봉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소식지를 발간하느라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 현충탑 참배(2005. 1. 3)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관한 주민설명회
(2005. 1. 15)



구청업무 보고회(2005. 1.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미국 버지니아비치시 대표단
방문(2005. 3. 28)
상호우호 교류를 위해 고양시
의회를 방문한 미국버지니아
비치시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
고 양 도시간의 발전방안을 모
색했다.



고봉산주변 일산2지구 생태 습지 보존 현장
방문(2005. 3. 15)



대규모 집단 취락지역 방문(2005. 3. 16)



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2005. 2. 3)

체코 프라하 정수장 견학(2005. 5. 6)
의원해외연수기간 중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체코 프라하 정수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푸른 숲 가꾸기 행사 (2005. 4. 2)



의회개원 14주년 행사(2005. 4. 15)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2005. 5. 21)



통일안보현장 견학(2005. 6. 2)

기획특집

풀뿌리 민주주의를 찾아서



영국에서 발달한 의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의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증대하자 의회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Grass Roots Democracy]는 민중 개개인에게 골고루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이며, 시민참여를 넓히고 보장하는 시민운동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풀뿌리 사상>에 기초한 독일 녹색당의 활동이 있다.

이 녹색당은 환경·여성·소비자·평화 및 반전·재야·학생·주민·제3세계 운동들과 사회 주변부 집단의 권익 운동 등이 포함된 활동의 중심이었다.

지금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지역행정을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정치 형태이다.

시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 중앙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시정의 안건을 다루기 위해 정기회기와 임시회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회기 동안에 의원들은 지방의 살림에 대한 결산감사,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벌임으로서, 지방 행정기관들이 잘 운영되는지, 행정운영에 부정이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심의하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들이 자치구역, 자치주민, 자치권 등 지역 사무를 지방자치체 재원으로 주민 스스로가 처리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제헌헌법(1948. 7. 17)에 근거조항이 처음 도입되어, 1952년에 최초로 구성되어 9년간 운영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제8차 헌법 개정 시(1980. 10. 27) 지방자치제의 순차적 실시원칙을 규정하였고, 1988년 3월 28일 지방자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4월 6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도 개정·공포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공포되어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부활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991년 3월 26일 주민직접선거로 실시된 고양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총 1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02년 7월 2일 제4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의정의 장을 개설하여 어린이와 주부가 의정에 참관토록 하고, 고양시의회 홈페이지(www.goyangcouncil.go.kr)를 개설, 인터넷은 물론 다양한 IT 뉴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 채널을 이용한 참여도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의회는 주민들에게 잠재되었던 참여 욕구가 IT 뉴미디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분출하면서 시민들의 욕구 수용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는 조직하부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시정 참여를 권장하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조직의 가동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영 편집위원〉

고양시의회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1. 3.26 : 제1대(초대) 군 의원 선출(임기 4년, 의원수 15명)
- 1992. 4.15 : 제1대 고양군의회 개원(전반기 원구성)
- 1992. 2. 1 : 시 승격에 따라 고양군의회에서 고양시의회로 새로 출범
- 1992. 5. 4 :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의회운영, 내무, 산업건설)
- 1993. 4. 9 : 제1대 후반기 원구성
- 1995. 6.27 : 제2대 고양시의회 의원 선출(임기 3년, 의원 수 38명)
- 1995. 6.28 : 상임위원회 증설(의회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 1995. 7.11 : 제2대 고양시의회 출범(전반기 원구성)
- 1997. 1.10 : 제2대 후반기 원구성
- 1998. 6. 4 : 제3대 고양시의회 선출(임기 4년, 의원 수 31명)
- 1998. 7.10 : 제3대 고양시의회 출범(전반기 원 구성)
- 2002.7.12 : 제4대 고양시의회 출범(임기4년, 의원 수 32명)
- 2004.7. 2 : 제4대 후반기 원구성

브리핑 상임위원회 활동

올 상반기 고양시의회의는 19일간 3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고, 4개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상반기 의정 활동을 정리해 보면 시가 제안한 주요안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상임위 별 상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의회 상반기 임시회 일정표

회 차	기 간
제 105 회 임시회	1.25~1.29
제 106 회 임시회	3.17~3.25
제 107 회 임시회	5.23~5.2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재황/간사:이영훈/위원:강태희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나공열 박종기 이창원

1월 1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과 「제 10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을 심사 확정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0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6회 45일을 포함한 총 80일이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 처리했다.



3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가 기정예산보다 920만원이 증가한 14억 6,386만 8천원으로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에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보다 138억 6,530만 4천원이 증가된 8,059억 5,650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이외에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 심도있는 의안 검토를 위한 「각종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방침안」과 「의원 공무원외여행계획 심사」를 처리했다.

5월 17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심사 확정하였으며, 107회 임시회에서는 안전처리와 시정질문을 가졌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양효석/간사김태임/위원강영모 길종성 나공열 박순배 엄기창 이봉운 이영훈 정윤섭 조문환

제 105 회 임시회에서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 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 106 회 임시회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산구 분구와 관련된 9 건의 안건과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5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 세입·세출 총 규모는 5,629 억 843 만 7 천원으로 재편성 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120 억 4,572 만 3 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들은 주로 일산구 분구와 관련된 예산이다. 처리안건 중 「2005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마두 1 동지역에 마두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능곡동 사무소를 개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마두시립 어린이집은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능곡동 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제 107 회 임시회를 통해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및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등 총 6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고양 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은 당초보다 면적이 (3,040㎡, 4,736㎡) 증가 되었으며, 식사 도시개발구역과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승인 고시 등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으로서 동 4 개 시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토록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브리핑

상임위원회 활동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김범수 / 간사:김혜련 / 위원:김정무 김현중 박윤수 박종기 배철호 심규현 이택기



제 105 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융자 수혜범위를 신입생에게도 확대하여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판단하였으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는 학업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에게만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제한 규정을 두도록 수정을 가하여 안건을 처리했다. 3월 8일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간담회를 시의회 영상회의

실에서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민간위탁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제 106 회 임시회에서는 「2005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1 억 51 백만원이 증액된 2,423 억 3 백만원으로 1.3% 가 증액되었으며, 고양시 전체 예산의 30.1% 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 105 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고양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을 2년간 시한부로 시행하고, 청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조건을 달아 안건을 처리했다.

제 107 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 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강매역사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대하여 지속적인 택지개발 추진과 그린벨트 해제 등 주변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역사로 판단되어 시의회 차원에서 역사를 존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7일 시 사회경제국과 교통환경국 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사회경제국 간담회에서는 원당재래시장 현대화공사, 여성복지회관 건립,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추가확보,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 화훼단지조성 및 관광명소화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장애인의 최적관람시설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교통환경국과의 간담회에서는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축 및 이전부지에 대한 내용과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새로 지어질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연기나 분진이 거의 없는 '열용융방식' 소각방법이 도입되고, 주변에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인 수영장, 농구장,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1,207억원 중에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할 것을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지역을 담당했던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의 적절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 농업정책과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장어 치어방류에 참여했다.

한강하구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장어의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며, 방화대교 하단지점의 선상에서 진행되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 간사: 김달수 / 위원: 강태희 김경태
김유임 박복남 박윤희 이건의 이창원 최성권



제 105 회 임시회에서 일산신도시 중앙로와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78km 도로 개설에 관한 「고양 도시계획시설(대로 2-14 호선)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역간

원활한 교류와 거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 백억원에 이르는 만큼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도 삼송, 동산, 화전, 지축, 향동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공영개발을 추진하되, 교통소통과 주거환경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3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고봉산 주변 일산 2 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습지와 숲 보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고봉산 보전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습지와 숲을 보존하기 위해 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가 관련 부지를

브리핑 상임위원회 활동



매입하자는 제안이 핵심 쟁점이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은 3월 25일 고봉산 주변 일산 2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습지와 숲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위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보존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고봉산 보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수질검사를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양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과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비심사를 하였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50억 3,547만 3천원에서 56억 718만 8천원이 증액된 4,849억 2,795만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일산구 분구에 관련된 예산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5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조직 통합과 청사이전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했다.

제107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제정안」 등 7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특히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 심사에서는 앞으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21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연말까지 완료하게 될 관리지역 세분화(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용역에 대해 관련부서인 도시건설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주민에게 공람과 공고를 통해 6월 24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시 한번 밀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미니인터뷰

고양의정소식 편집위원장에게 듣는다



이 재 황
(의회운영위원장
성사2동)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정책을 맡으셨는데, 우선 지방자치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0년간 자치제도를 운영하다가, 1961년 5월 16일 자정을 기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30년 만에 의회가 부활한 것입니다. 지방정치의 현실은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두 축으로 상호 견제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나 단체장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회지는 전문성과 예산 확보 및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전문성을 위해 민간 편집인을 뽑았습니다. 민간 편집인들의 등용은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민과 늘 함께 하는 의회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첫 발행인만큼 편집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의회지에 대해 ‘의원들의 홍보지다’, ‘형식적이다’ 등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고양시 의회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요?

이제 창간되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의회 활동을 알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식지는 지자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개하고, 시민들의 정치수준과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의원들의 홍보지’란 지적도 유념해서, 참신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정과 의정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공개하고 특히,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배정, 제정 및 개정된 조례 내용,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어 의견을 반영하는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나 운영의 비효율성이 간간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방자치,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이 되도록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우리 실정에 꼭 맞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은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의회가 수행하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반대를 위한 지적보다는 대안이 있는 지적을 해주신다면 좀더 발전적인 의회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들의 소식지에 대한 돈독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와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요. 감사합니다.

문화인
생각

김 연 수

소설가. 성균관대 영문학과 재학 중이던 1993년 <작가세계>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듬해 처음 쓴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가 제3회 작가세계문학상에 당선되면서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다. 2001년에는 동서문학상을, 2003년에는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소설 <나는 유명작가입니다>를 발표했다.

일산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0년이 가까워진다. 북한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삼청동, 정릉, 성북동 등등을 전전하다가 이번에는 평창동에서 살아볼까 하고 길을 나섰다 그 때만 일산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라탄 게 그 계기였다. 그 때만 해도 일산은 개발되고 있는 중이었다. 정발산역을 빠져나왔더니 그저 허허벌판만 보일 뿐이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산에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건 집값에 비해서 집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이라면 다세대 주택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집에서 글을 쓰느라 서울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일산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처음 집을 구한 곳은 중산지구였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에 가려져 노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때만 해도 구일산 쪽으로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해질 무렵 중산지구 중심가에서 탄현 쪽을 바라보면 붉은 노을이 굽어보였다. 일산은 서쪽을 바라보는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노을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노을에 완전히 반해 버렸다. 운동을 꼼짝하게도 싫어했던 내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도 그 노을 때문이었다. 천천히 해가 지는 동안, 운동장을 달리는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상은 그 노을만큼 아주 멀리 있는 듯했고 모든 건 한적했다.

그 즈음, 내 인생도 그와 비슷했기 때문에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일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들자면, 우선 중산지구에서 바라보던 그 노을(얼마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풍경은 사라져 버렸다), 봄날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지하철을 잡아타고 나가다가 바라보던 화정의 배꽃들, 비 오는 금요일 오후의 저동초등학교 주위 풍경, 맘을 잔뜩 흘리며 올라간 더운 여름날의 정발산 꼭대기 정자, 푸른 하늘로 별빛 몇 개가 떠오른 초저녁 일산 IC로 들어오면서 바라보는 인터체인지 위의 자동차들 같은 것들이다. 벌써 10년쯤 같은 도시에서 살게 되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남 모르는 애착이 들게 마련인데, 내게는 여전히 그게 애착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마두도서관이다. 원래 나는 도서관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좋아했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처럼 큰 도서관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수록 책을 많이 소장한 도서관을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두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사실 책도 별로 많지 않아 여전히 나는 구하기 어려운 책을 읽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찾아가곤 한다. 그렇긴 해도 이제 내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건 큰 도서관들이 아니라 마두도서관을 뜻하게 됐다. 말하자면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셈이다.

한 때는 매일 출근하듯이 마두도서관을 찾아가곤 적이 있었다. 아침 일찍 가면 주차하기도 쉬운데다가 사람도 많지 않았으므로 책을 읽을 마음이 났다. 아침에는 3층 한쪽 구석에 앉아 서가에 꽂힌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뽑아서 읽었다. 점심시간까지 읽으면 소설책 한 권

을 읽을 수 있었다. 정발산 쪽의 열람대에 앉는 까닭은 거기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이었다. 책을 읽다가 눈이 흐려지면, 고개를 들어 창문 바깥을 바라봤다. 그러면 거기 열린 창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한적한 오전의 도서관, 생각났다는 듯이 불어오는 바람, 보이는 모든 초록색 등등. 아침의 마두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은 내 인생의 명장면 중의 하나였다. 그 작은 창으로 보이는 풍경 속으로 참 많은 계절이 다녀갔다. 마두도서관 뒤쪽 언덕빼기 벤치 옆에 서 있는 빗나무는 정말 싱그러웠다. 사람으로 치자면, 열일곱 살 정도의 사내애처럼 느껴진다. 가끔 점심을 먹고 나면 거기까지 올라가 그 나무의 둥치를 손으로 만져볼 정도였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또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나뭇잎으로 그늘을 드리우는 것을, 그리고 그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다시 발치가 하얀 눈에 덮이는 것을 나는 그 작은 창으로 볼 수 있었다. 그 작은 창에서 고개를 돌려 책을 바라보면, 책 안에서는 수없이 많고 다채로운 인생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결국 그런 일이었던 모양이다.

서서히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한 순간의 생각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이해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마두도서관만큼 책을 읽기 좋은 장소는 없는 셈이다. 10년쯤 지나게 되니, 일산도 점점 복잡해졌다. 어리석게도 라페스타를 만들 때만 해도 과연 그 가게들이 장사가 될까, 내가 다 걱정이 되던 것이 주말이면 택시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한 때 팔뚝에 문신을 새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팔도장터를 꾸리며 파전이나 동동주 따위를 팔던 공터로는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다. 나의 개인서가처럼 이용하던 마두도서관에도 사람들이 북적댄다. 결국 나는 오랜 아파트 생활에 싫증이 나 마두도서관 맞은편으로 이사 오게 됐지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자리에서 살게 됐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두도서관에 자주 가지는 않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게 내 마음인데도 말이다.

지금은 마두도서관보다는 저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독일식 생맥주 집을 더 자주 가게 됐다. 책갈피를 넘기던 손으로 생맥주를 들이켜는 일이 더 잦아졌다. 하지만 크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마두도서관에 앉아서 내가 읽고자 했던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이었고, 생맥주 집에 앉아서 내가 읽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보여준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에게 삶이란 모두 한 순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한 순간이 영원히 자신 안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일산이 참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그런 순간이다. 내가 찾아서 펼쳐볼 수 있는 몇 권의 책, 더운 여름날 오후 찾아가 마실 수 있는 거품이 가득한 한 잔의 맥주, 그리고 그 푸른 잎들을 한없이 올려다보며 걸어갈 수 있는 가로수 길. 지난 10년간 나는 맛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산을 맛본 셈이다. 그 맛과 함께 내 인생의 한때가 흘러갔다. 그 시절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포커스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고양시의회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향한 시민정신, 지역주민의 요구,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망언,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다. 상반기 고양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찬·찬·찬」 운동 결의

고양시는 앞으로 100 만 인구를 보유하게 될 거대 광역도시이자 통일시대 경기 북부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부도시이다. 시의회는 고양시를 문화관광시설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컨벤션 산업을 주도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1 월 29 일 가칭 「찬·찬·찬」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칭찬하자는 의미의 「찬·찬·찬」 운동은

첫째,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척결하자는 것이며

둘째, 사익(私益)을 위해 상대를 불신하지 말자는 것이며

셋째,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것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첫째,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은 끝까지 경청하자.

둘째,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노고를 칭찬하자.

셋째, 부득이한 반대도 칭찬처럼 하고 반드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자.

넷째, 상대방을 불신하기 전에 스스로 검문해지자.

다섯째, 상대방을 미워하기에 앞서 장점을 먼저 찾아 칭찬해 주자.

여섯째, 상대가 모르는 장점을 찾아 끊임없이 칭찬해 주자.

일본의 독도침탈 중단 촉구 결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판단, 일본의 계속된 망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3 월 25 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하나.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침탈을 기도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본정부는 각성하고 이를 방관한 고이즈미 일 본총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제 독도는 우리국토의 동쪽 막내 섬이 아니



「찬·찬·찬」 운동 결의
일본의 독도침탈 중단 촉구 결의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

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

30년 이상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강매역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강매역사가 폐쇄될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입주하는 행신 2지구 입주주민들의 피해는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인정한 고양시가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실정에 처해 시의회는 5월 27일 강매역을 남겨둘 것을 결의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강매역사와 인접된 230,000평 부지를 수용하여 행신 2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신 2 지구에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분양아파트 5,000세대, 계획인구 15,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금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11월 중에 분양을 해서 2007년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입주할 입주민과 기존의 강매동, 행신 1동, 행신 2동, 행신 3동과 가라피 지역을 합하면 강매역의 1일 사용대상 인구는 3개동 전체의 인구 105,821명의 40%와 계획인구 15,000명을 합하면 약 50,000명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매역은 반드시 존치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결단코 철도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인 국민과 주민,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2005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며, 매년 6월 15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사업과 예식, 그리고 활동을 추진할 것을 지난 5월 27일 결의하였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상원과 하원은 올해 3월과 4월에 2005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의하였고, 워싱턴주 웨더럴웨이는 5월에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같은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미 남북 교류의 중추도시로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작년 4월 1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을 결의한 것이다.

앞으로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사업, 예식, 그리고 활동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고양시가 남북 교류와 사회통합의 중추도시이자, 평화통일의 주도적 도시로서 미래를 개척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상반기 고양시의회가 임시회(105~107회)를 통해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4건, 의견청취 4건, 기타 10건으로 총 5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중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3개 상임위원회 별로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자치행정위원회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고양시 통·반 조례에 통장의 임기가 2년 1회 연임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자격도 '2년 이상 근속'에서 '1년 이상 근속'으로 완화. 현 조례대로 지급할 경우 현원의 7% 범위 내에서 저조하게 지급되고 있어,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장학금의 수혜도가 낮아 수혜도를 폭을 넓힘.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00년도 이후 일산구가 전국 제일의 과대한 구로 성장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구 추가설치에 따른 구 설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 이는 일산구가 인구 50만(면적 101km²)의 과대·구로써, 3년 정도 각종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토론회, 간담회 등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시가 광역시로 발전될 경우, 자치구로 대비하기 위해 일산구를 분구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시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시가 반영)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세액 급상승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이 높아 조세저항이 예상됨.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율을 50% 인하. 이는 조세 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와 간담회 등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여 노출된 문제점인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의 변동으로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급등하여 주민들과의 조세 저항은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인하 조정한 것임.

사회산업위원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융자 수혜범위를 신입생에게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도로건설로 인하여 가로청소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신규 충원이 중단되고 정년퇴임 등 인력이 감소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와 청소문제가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청소 실태에 대해 매년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2년간 시한부로 민간에게 위탁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중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1회용 티백 등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방지 및 처리의 효율을 위하여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토록 하기 위함.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2대, 콤바인 4대, 이앙기 6대, 광역방제기 1대로 농기계의 종류를 벼농사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어, 과수·축산·채소에 이용되는 과수원 소독기(SS기)·다목적관리기와 부속 작업기로 곤포 생산장비(결속기·그래플·랩피복기·반전집초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건설위원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안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왔으나 이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수질검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므로써 적극적인 수질관리와 주민편의를 증진함. 이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도시의 위상에 맞게 먹는 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약수터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에 철저히 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됨. 또한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크게 단축시키는 등 민원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호수공원 내 위치한 노래하는 분수대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전기비, 수도비, 기타 관리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 우리시는 매년 대형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크게 증가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또 이용자에게는 이용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이용률을 높여 볼거리를 늘리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 노래하는 분수대 이용을 원하는 단체는 1시간 이용 기준으로 시설별 이용 요금은 구분수대 40만원, 계단 및 바닥분수대 17만원, 음향시설 5만원을 이용료로 납부하면 됨.

주택 조례 제정안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최고 사업비의 50%를 지원. 우리시는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4월말 현재 319,008세대 889,910인으로 그 가운데 약 194,892세대 584,676명(2003년 말 통계연보 참조, 세대당 3인 기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이는 전체대비 약 61%로써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202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995년 8월 15일 최초 수립된 2011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립과, 상위법령의 제정 등에 따른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변화 등 대외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한국국제전시장·관광문화단지·화훼산업단지·지식기반정보단지 등 자족기반시설,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 등 대내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미래상을 새롭게 설정. 변화의 주된 이유는 약 4백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그 외 일반지역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화기조가 적은 장항동 일원의 지식기반사업단지(66만평)를 포함하여 7개소 123만평 정도의 면적이 시가화 예정지역 및 주거용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

경기교육청 제2청사, 고양시 유치를 위한 제안



김 유 임
(경기교육청 제2청사
유치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주업2등)

경기북부지역 중 고양시 교육수준은 월등히 높은 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조만간 경기교육청 제2청사가 개청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는 제2청사를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교육청에 공정한 절차와 지역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경기교육청 제2청사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 관계자 면담, 부지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교육감으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33.5%, 학교 24.6%, 학생 36.8%로서 다른 시·군에 비해 교육수요가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제2청사 위치는 지방교육청의 그 주요업무인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협조와 교육민원 등의 기능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지리적 위치가 입지선정의 주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교육청이 임시청사로 정한 의정부의 '북부교육관'은 본래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관하자마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학교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기에 고양시는 반대한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앞으로 남은 일정은 경기교육청 제2청사 개청준비위원회 중심으로 개청을 준비할 것이며,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당한 입지가 선정될 것이다. 고양시는 경기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위해 입지 부지를 물색하였고, 다양한 지원방향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에 제2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교육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이다. 지역주민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공공기관의 입지선정시 공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

시의원 칼럼

일산역에서 기차 타고 파리에 가는 꿈을 꾸다



김 혜 련
(사회산업위원회,
화정2동)

금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외연수로 유럽지방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흥분시켰던 것은 유로화와 국경이었다. 서로 다른 나라가 같은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통화와 국경의 자유로움 만으로도 유럽은 이미 단일한 공간과 대륙으로 뭉쳐졌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역사와 문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류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유럽인들은 남의 나라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대륙의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반하면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섬이다. 외국을 가는 방법이 배와 비행기외에는 없다. 이렇다 보니 외국을 가는 일이 유럽처럼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마음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조상들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었다. 넓고 넓은 만주벌판이었고 중국대륙이었다. 통일신라시대 최치원과 같이 우리 선조들의 무대는 당나라가 아니었던가.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대륙으로 열려있었던 북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섬나라이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외국을 갈 수 없는 북쪽이 막혀있어서 슬픈 섬나라이다. 유럽을 다녀온 후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3개월짜리 대륙횡단철도표를 사서 일산역에서 출발한다. 문산을 지나 개성을 도착해 선죽교를 보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탄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들을 만나 자유롭게 즐겁게 대화하며 프라하를 거쳐 파리까지 가는 긴 여정의 꿈을 꾸다.

남·북한의 당장의 통일이 힘들다면, 경의선이 연결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기차만이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북한을 거쳐 유럽을 갈 수 있는 길만이라도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북쪽이 막힌 슬픈 섬나라는 아닐 것이다.

기차를 타고 파리에 가는 나의 꿈이 실현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아시아, 그리고 세계 속의 우리 나라, 세계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계 속의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방자치가 만든 희망 ‘생활정치문화’



박순배 부의장
(고양동)

지방자치를 일컬어 민주주의 꽃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뿌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1991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부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그게 올해로 15년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1995년 초선 의원으로 등원해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지방자치를 배우고 익히면서 11년 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체험해 온 나로선 당연히 희망적이라고 자신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성과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보는 시민으로부터 나온 풀뿌리 권력 그 자체였다.

이제 그 시민역사의 현장을 누비고 다닌 지가 10여 년이고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이 흘렀다. 15명이던 의원수도 이제는 32명으로 늘어났고 인구 20만이던 도시는 90만의 거대 도시로 탈바꿈했다.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각자의 의사를 개진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참여하면서 시민 참여의 문화도 확산되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는 그런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의기구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초창기만 해도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만연하였다. 그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리고 변화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 현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민 사회로의 진입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지역의 일꾼을 찾고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의견을 나누면서 그 발전방법을 모색해나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잠자던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의지를 문 밖으로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의 정신을 갖고 자기의사를 분명히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참여문화는 지방자치, 즉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우리사회의 또 다른 생활정치문화이다. 지방자치 그 15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작은 정치, 생활정치가 갖는 철학 그게 지방자치가 만든 희망이고 시민사회의 현주소다.

3년간의 의정활동을 반추하며



정 윤 섭
(자치행정위원회,
행신2동)

의회 진출 지난 3년은 지역주민의 과분한 지지와 성원에 흠결이 될 수 없다는 신념과 각오로 중중걸음을 쳐왔던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또한 천명과 같은 공약들을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신념과 열정이 충만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이 있으며, 이것이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여기고 있는 행신역의 고속철도 시발역사 기능 확대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수반된 국제화 도시를 바라는 고양시민의 숙원에 한발 다가선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의회와 집행부의 존속이유를 걸고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회에 제출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자마자,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발역사 타당성에 난색을 표명해 왔던 철도청과 건교부로부터 우선 4편에서 16편으로의 증편과 함께, 향후 경제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전한 시발역으로의 격상보장을 약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행신중학교 수신평 건립과정을 통해 민의를 공론화시키고 건전하게 가시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위원의 또 다른 큰 소명임을 알았다. 당시 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참교육 실천 공간 확보를 통한 교육제자리 돌려놓기에 대한 열정을 전해 들었을 당시만 해도 사실 실현여부에 반신반의 했었으나, 뜻이 올곧고 취지가 건전했기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결집된 힘과 고양시로 하여금 건립비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과 함께 교육부의 대응투자 및 국비지원 또한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회활동 통틀어, “자칫 면학에 대한 열정을 채울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어주자”는 취지와 이에 공감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19년 전 B.B.S 장학회를 결성하여 회원들의 순수 회비로만 조성된 장학금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중단 없이 전달해 오고 있는 것만큼 더 소중한 보람은 없었다.

이를 통해 나 스스로 초심을 지키는 의정활동의 덕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회구현이야말로 정치의 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KINTEX 개장과 함께 한국 전시산업의 판도가 바뀐다

우리 고양시의 자랑인 한국국제전시장(KINTEX)가 지난 10여년 간의 준비를 마치고 지난 4월 29일 일산 서구 대화동에 공식 개장하였다.

KINTEX의 개장과 함께 국내의 만성적 전시 공간 부족현상은 공급초과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시장 간 '경쟁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물론 국제규모의 척도인 5만㎡ 전시회 시대의 본격 개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KINTEX는 오는 2013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서 이번에 개장된 부분은 제 1단계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약 7만 2천평 부지에 전시면적 1만 6천평(축구장 면적의 약 6배)과 회의실 약 2천 4백평 규모로 전시면적만으로는 지금까지 한국 최대 전시장으로 꼽혀 온



COEX 전시장의 약 1.5 배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30 만평 부지에 전시면적만 약 5 만 4 천평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대표 무역 전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다. KINTEX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KINTEX에 인접한 지원시설단지에 최고급 호텔과 무역센터, 공항 터미널, 고급쇼핑몰, 차이나타운, 수족관, 한류우드 등이 2008년 경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최대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양시 일원이 동북아 경제무역 중심지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산이 갖는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우리 고양시민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파급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양시민들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 지방세 세수증가 및 이에 따른 총생산 증가 등 금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INTEX의 개장으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판도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시장에 대한 수요 초과현상으로 전시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던 실정에서 KINTEX의 개장으로 이제는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각 전시장 간 경쟁은 각 전시장의 상호 발전은 물론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변화되어 전시장 간 서비스 고급화와 획일적인 가격체계 또한 시장개념을 고려한 전시장별 특성을 앞세워 차별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전시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KINTEX는 국내전시회의 국제화, 대형화, 전문화를 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전시회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KINTEX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전시회에 더욱 많은 외국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또한 더욱 많은 외국 바이어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나아가 해외 유명 전시장과 협력하여 전시회의 공동개최 및 개발은 물론 전시인력의 양성 등에 주력하여 국내 전시산업이 세계 유명전시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KINTEX는 1만 6천평에 달하는 무주(無柱), 단층(單層) 전시공간(바닥하중 5t/m²)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벤트나 경량 소비재 전시회 보다는 B2B 형태의 대규모 산업전문전시회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KINTEX의 전략은 그간 전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국내의 Big 5 전시회(모터쇼, 전자전, 기계전, 공작기계전, 하우징페어 등)를 모두 KINTEX로 유치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2005년(4월말 - 12월말 기준) 총 29회의 전시회와 14회의 컨벤션을 유치 또는 개최하여 공간회전율 45%를 상회하는 전시장 가동률을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KINTEX는 2, 3단계 공정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여 전시산업의 Hardware와 Software 양 부분 공히 동북아 대표 무역전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어 향후 KINTEX의 항배에 국내의 전시업체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 봉 원 의장
(원신 · 흥도동)

권봉원 의장은 6월 17일 일산복합화력발전처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대응능력의 향상과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과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6월 30일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석하여 자치 경영부분 최고대상을 수상한 고양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순 배 부의장 (고양동)

박순배 부의장은 지난 4월 18일 고양시립 홀트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 참석하여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장애의 극복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을 갖게 함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6월 18일에는 농업경영인 고양시연합회 가족수련연합회에 참석하여 고양시 농업경영인 및 회원 가족의 화합과 우의를 증진하고 지역농업발전과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농업 개방과 경쟁시대에 대응한 고양시 농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길 중 성 의원 (탄현동)

길중성 의원은 지난 4월 5일 올림픽경기장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장 선거에서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5월 25일에는 울릉도 도동항 해상공원에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비를 가수 정광태 등과 함께 세웠으며, 6월 25일에는 대전광역시 시립수영장에서 열린 제1회 전국수영연합회장기 마스터 수영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스포츠맨 십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지도록 당부했다.



강 영 모 의원 (일산3동)

강영모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주문화재 위탁업체선정 심사에 참석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행거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 24일에는 아름다운가게 일산점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현 복지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상반기 수입을 배분하고 복지제도의 미비점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달 수 의원 (화정1동)

김달수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고양시 126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6월 9일에는 2005년도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출범과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6월 13일에는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고양환경운동연합 시정감시단 예산편성의 실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고양장학회 발기인대회 준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 범 수 의원 (백석동)

김범수 의원은 지난 7월 1일 백석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의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위촉됐다. 백석 배드민턴경기장은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 코트 6개면이 들어서며, 2005년 6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배드민턴 경기장이 들어서는 것은 배드민턴클럽 우종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고양시장, 백석동장, 도의원 등 각계 각층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 혜 련 의원 (화정2동)

김혜련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고양 어린이나라 건립을 위하여 평택시 유아체험교육관과 송파구 삼성 어린이박물관을 벤치마킹했으며, "고양 어린이 나라"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 관계자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 무 의원 (화전 · 대덕동)

김정무 의원은 지난 7월 2일 화전동 제2통 경로당 보수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노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노인들이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공 열 의원 (창릉동)

나공열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삼송택지개발지구 창릉동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보상협의 및 이주택지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7월 9일에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1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동산동 소방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김 태 임 의원 (마두2동)

김태임 의원은 지난 4월 8일 고양시의 으뜸 교육분위기 조성 위한 경기교육 으뜸모임모니터 회의에 참석했다. 5월 4일에는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미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도하는 대한주부클럽마두지회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5월 11일에서 5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민주평통 평화통일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복 남 의원 (정발산동)

박복남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기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관내 새마을회관 신축 공사장과 하수도 역류 현상으로 주택이 침수된 현장을 방문하여 수중모터를 투입하여 물을 퍼내는 등 주민본위의 민원행정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박 윤 수 의원 (마두1동)

박윤수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공사중인 공원길 포장공사와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둘러 보고 공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8일에는 보건소 방역차에 직접 탑승하여 관내 방역활동을 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29일에는 고양신용협동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여 개인 기량을 마음껏 펼쳐달라고 격려했다.



심 규 현 의원 (대화동)

심규현 의원은 지난 7월 7일 킨텍스 스트리트 설계 보고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적절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7월 15일에는 풍동 학골에서 열린 고양시민회 창립 제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활약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윤 희 의원 (주엽1동)

박윤희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관해 자문을 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4월 22일에는 고양시를 방문한 뉴질랜드 홈스테이 초등학생들을 인솔 고양꽃전시회를 관람시켜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겼다. 5월 27일에는 덕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학교폭력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아이들의 폭력문제를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효 석 의원 (효자동)

양효석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관내 장마대비 순찰을 통해 북한산온천 입구에 우수로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행정을 실천했으며, 6월 20일에는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효자동 복지회관을 구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6월 22일에는 행주문화제 제안발표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효자3통과 효자4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6월 30일에는 지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예정지를 구청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중 기 의원 (행신3동)

박종기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고양상공회의소장 회장 자격으로 고양상공회의소 임원진 회원업체인 한백디시스템 등 3개 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고양상공회의소 우후교류단 단장으로 중국 하북성상회와의 우후협력체결과 외자유치투자 설명회 및 하북성 석가장시 공단 기업체 시찰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엄 기 창 의원 (관산동)

엄기창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관산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6.25상기 평화통일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6.25 전쟁유족과 상이군경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건 익 의원 (장항 2동)

이건익 의원은 지난 5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장항봉사회 회원과 함께 관내 지체부자유 노인 50여 명을 모시고 호수공원 봄나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월 30일에는 장항2동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장항2동 통장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택 기 의원 (주교동)

이택기 의원은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 및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의도 국정현정기념관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연수를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다녀왔다. 또한 신고양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서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홍콩국제 라이온스대회에 참석하여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키며 불행한 사람을 위하여 사회에 무한의 봉사를 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섰다.



이 봉 운 의원 (송포 · 송산동)

이봉운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송포동 주민 50여 명과 참석하여 (가칭)송포고등학교설립청원건에 대한 심의과정을 참관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원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도청은 행정지원을 도교육청은 예산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봉운 의원은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정 윤 섭 의원 (행신2동)

정윤섭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행신2동 관내 7개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회장 및 교장선생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전문도서관 유치설명회를 가졌다. 6월 27일에는 관내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행신2동사무소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행신2동장, 예비군중대장, 관내 학교장, 금윙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재 황 의원 (성사 2동)

이재황 의원은 지난 4월 1일 천안 단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천안시장기 전국좌식배구대회에 참가한 고양시좌식배구선수단을 방문하여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선전하도록 격려했다.



조 문 환 의원 (고봉동)

조문환 의원은 지난 7월 4일 고봉동사무소에서 열린 통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인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7월 6일에는 고봉동 15통 동지마을 마을회관 보수 및 도로포장공사 사업예정지를 현지 방문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 식 의원
(행신 1동)

최경식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고양시도시기본계획 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의 장기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최의원은 이 자리에서 낙후되어 있는 고양시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과 충분한 개발용지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욕선포니에타 연주회

- 일시: 8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덕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입장료: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 특징: 풍부한 표현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 성기선과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의 연주를 감상



KBS교향악단 제578회 정기 연주회

- 기 간 : 8월 27일(토) 오후 7시
- 장 소 : 덕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입장료: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 특 징: KBS 교향악단 제 578회 정기 연주회로서 줄리안 코바체프의 지휘로 고전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베토벤의 작품이 연주



세종솔로이스츠의 <폴스토리 '사계'>

- 일 시: 8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덕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입장료: 으뜸자리 30,000원, 좋은자리 20,000원
- 특 징: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내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의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뉴욕타임즈지 등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지휘자 없는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음



일본 헬레만실내악단

- 일 시: 8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덕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입장료: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 특 징: 바로크 음악 연주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문 실내악 연주단체

한들타래이야기 "금강초롱을 찾아서"

- 공연일시: 2005. 8. 27(토) 오후 4시 / 7시 30분
- 장소: 고양별모래극장
- 입장료: 으뜸자리 3만원, 좋은자리 2만원, 편한자리 1만원
- 출연진: 한돌, 김익철, 이정미, 한영애, 문지환, 폴리포니,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내용: 광복, 민족, 역사 되뇌이기
- 특징: 대중음악 본래 의미를 찾아 청개구리가 다시 부르는 한국 포크음악으로의 여행



화이트 사이드 스토리(White Side Story)

- 기 간: 8월 5일(금)~8월 7일(일)
- 장 소: 덕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 공연업체: 코믹트러스트 극단 (러시아)
- 입장료: 으뜸자리 20,000원, 좋은 자리 18,000원, 고른자리 15,000원, 가장자리 12,000원
- 특 징: 2005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품으로 국내 초연되었던 화제작. 진지한 내용을 익살스런 웃음으로 풀어내는 '비주열 중심의 음악극'.

덕양어울림누리에는 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어울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문의 및 예매처: 고양문화재단 1544-1559 www.artgy.or.kr 한글인터넷주소: 어울림누리

고양시 나들이 고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①

고양 땅이자 고양의 정신적 지주 북한산

삼라만상은 다 제 이름을 갖고 있다. 고양 땅의 93%를 차지하는 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불려온 이름이 북한산이다. 최근 그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삼각산으로 이름을 바꾸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것.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 북한산 정상, 백운대의 주소다. 고양 시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곳. 고양 땅의 정기가 시작되는 북한산 정상이 고양시 행정구역에 있다는 사실은 북한산이 고양시의 산이라는 걸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에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꿔 부르자는 것은 곧 남의 땅인 고양시의 산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고양시민으로서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다. 땅을 지키자면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

산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북한산의 역사, 이름, 각 문화유적의 유래 등을 소개하자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란다. 북한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산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북한산성을 비롯하여 비봉의 진흥왕 순수비, 보물로 지정된 태고사의 원증국사탑과 비, 그리고 승가사 마애여래석가좌상, 삼천사 마애여래석가 입상 등 수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임금의 임시 거처지인 북한산의 행궁터, 160여 칸의 거대한 사찰이었던 중흥사터, 금위영 이건기비, 효자 박태성의 묘, 백운대 정산의 3·1운동 암각문, 상운사의 불상과 봉성암의 부도 등은 물론 아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도 한둘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뉘뉘이 이어져 내려온 정신

도 곳곳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산 이곳저곳에서 시절마다 열리는 산신제와 굿도 그중 하나.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통상 3년에 한번 음력 4월초에 치르는 굿이나 매년 8월과 10월초에 지내는 산신제는 민간신앙 속에 담긴 우리의 혼을 느낄 수 있는 행사이다. 고양신문은 창간 16주년을 맞아 내고장 명산 북한산을 고양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양문화재단과 함께 “북한산은 고양 땅”이란 주제로 사진기획전을 벌이고 있다. 장소는 덕양 어울림 누리의 ‘어울림 미술관’이며, 6월 15일~7월 12일까지 전시한다. 대대로 불러온 이름을 바꾸자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북한산 이름 바꾸기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이 앞서 있다. 이런 개발 움직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없이 버티고 있는 북한산의 침묵이 의연하다. 독도가 그렇듯 땅 지키기는 가서 밝아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에 몸 담그는 것도 더위 식히는데 그만이었지만, 마음과 몸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명산 북한산으로의 가벼운 산행도 해보고, 북한산의 아름다움을 전시한 사진을 감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김미정 편집위원)

북한산의 문화유적지 볼거리

● 북한산성: 우리나라 최대의 석성으로 북한산의 주봉에 축조



북한산성은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할 때 도성을 지키는 용도로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축성되었다. 백제의 주력군이 이 성

에서 고구려의 남진 세력을 막았으며, 그 뒤 근초고왕의 북진정책에 따라 북벌군의 중심 요새가 되었다.

산성의 성벽은 화강암을 주재료로 하여 총길이 약 10km,

높이는 평균 3m에 이르는 거대한 유적이다. 바위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지금은 성곽의 여장성위에 낮게 쌓은 담은 무너졌으나, 대서문이 남아 있으며, 성체는 보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북한산성의 역사와 관리 현황을 기록하여 둔 비문

숙종 때 북한산성 내의 금위영 건물을 옮겨 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석비이다. 북한산성 내 대성암 아래에 있다.

● 중흥사지: 북한산 최대의 사찰, 보우국사가 있었던 명찰

북한산 노적봉 남쪽 산록, 장군봉과 구암봉 사이에 위치한 옛 중흥사의 터이다. 고려 초에 창건되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고 고려 말에 보우국사에 의해 중수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규모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조선 후기이다. 숙종(1733)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은 후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외각에 대대적인 축성 사업을 일으켰다. 숙종 39년 북한산성이 완성되자 성내에 승군을 두고 성을 지키게 하였는데, 중흥사가 승군이 주둔하던 산성 내 11개 사찰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축성 당시 30여 칸의 소규모 사찰이었던 중흥사가 136칸의 대찰로 증축되었다. 그 후 1894년에 화재를 만났고, 다시 1915년에 홍수를 당해 무너진 뒤 중건하지 못하고 주춧돌과 축대만 남아 있다.

● 행궁지: 전란 시 임금이 머무는 거대한 궁궐자리

숙종 때 임금이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 지은 궁터이다. 땅위로 드러나 있는 건축물은 현존하지 않으며, 약 3천여 평에 이르는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행궁은 임금의 임시 숙소

로, 임금이 거처하는 궁의 격에 맞추어 지은 관아건축물이다. 전시에 임시 피난처 및 지휘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짓기도 하지만 피서나 피한 또는 요양을 위해 짓기도 한다. 고려시대에 특히 많이 지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수원의 화성을 비롯하여 몇 군데 행궁이 있었다. 일제강점기까지 건물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언제 훼손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행히 일제강점기에 찍힌 사진이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소리

고양의정소식의 '시민의 소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시의 회를 만드는 작은 공간입니다. 고양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시민의 울골은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부〉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 경 두 (덕양구 행신동)

행신동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시각 2005년 5월 24일 21:40분으로써 아파트 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악취 발생시기는 금월 초순경으로, 근원지는 행주대교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농도가 짙은 악취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볼 때, 대량 인분처리 시설과 관련이 높을 것이 추정됩니다.

고양시 및 덕양구청의 지방행정 전자민원 창구 2곳이 현재 다운상태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기적으로 강력한 악취가 행주대교 부근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도시 추진 구호만을 내세우는 상태라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해결에 나서야 하는지 그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께서는 E-mail이나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jaewoncho@goyang.go.kr 전화: 965-5014 ~ 6, FAX: 967-8045

“고양시 문화행사에, 고양시민에게 주는 할인혜택은 없나요?”

한 해 진 (일산서구 주엽동)

일산구에 10년째 살고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시민입니다. 타 도시의 문화유적지나 명산 등지를 찾게 되면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는 입장료가 없거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비용을 절감한다는 작은 기쁨도 부럽지만, 그보다도 본인이 사는 도시에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자부심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문화유적지가 많고, 얼마 전 개장한 킨텍스, 호수공원 등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고양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할인혜택들이 있는지요?

“어울림누리과 아람nur리의 운영방안은 있나요?”

김 해 근 (덕양구 화정동)

정치인들은 장기적이고 실질적 효과보다 단기적이고 정치적 효과를 우선한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뤄지지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한정적이므로 이른바 전시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나 또한 그렇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하게 되는데 최근 그 불신 리스트에 오른 것이 덕양 어울림누리과 일산 아람누리이다.

문화 예술 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지역문화 발전과는 상관없는 대형 공연장이 그것도 비슷한 성격의 공연장이 두개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작년 개관한 어울림누리에만 시 예산 중 백억 가까이 쏟아 붓고 있다니..., 아람누리까지 개관을 한다면 매년 시 부담은 백억이 넘지 않겠는가.

이 문제로 2003년에 이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안다. 그 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어울림nur리가 개관을 했고 올 연말 아람nur리가 완공될 예정이니, 사업의 평가와 운영방안 모색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비싼 공연 문화만 문화라고 생각하고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보다 낫다고 중복 과잉 투자하지는 않았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수천억씩 들인 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

지금 고양시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2005 년도 재산세가 많이 달라진다.

-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세목이 바뀌고
- 과세표준제도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고
-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이 50%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고
- 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어, 전년도보다 50%를 초과해 부과되지 않으며
-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과 9월로 바뀌고
- 금년부터는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 장 발급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12 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재산세과표 4억 5천만원) 초과
- 나대지 · 잡종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국 합계액이 6억원(재산세 과표 3억원) 초과
- 영업용 · 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국 합계액 40억원(재산세 과표 20억원) 초과

· 문의: 고양시 세정과 ☎ 961-2181

소년소녀가정 · 교통사고유자가정 전세주택 지원

□ 지원대상

- ①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②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 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으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③ 교통사고유자가정으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주택규모 : 임차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 지원한도 및 지원금액 : 4,000 만원 (수도권, 광역시)

□ 지원기한 및 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가 지난 경우 기한 연장시 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납부

□ 지원방법 : 시장 · 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한 주택공사 등에 추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물색, 직접 전세계약 체결

* 지원대상 가정은 해당주택에 입주만 하면 됨

· 문의: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 02-2110-8142~4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처 ☎ 02-738-4072~5
고양시 주택과 ☎ 961-2936

여름철 전염병(식중독) 예방 방법



가정의 행주에는 세균이 1천억 마리, 수세미에서는 1천만 마리가 검출된다고 한다. 게다가 면행주는 하루만에 12배, 사할 뒤에는 8만배, 수세미는 하루만에 5배, 사할 뒤에는 5천배 이상 살모넬라균이 증가한다. 따라서 여름철 주방기구는 하루에 한번 삶아서 햇볕에 말리고, 싱크대 배수구는 락스 등을 이용한 소독과 수시로 뜨거운 물을 부어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번식을 막아야 한다. 여름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냉장고의 적정 냉장 온도는 5℃ 이내이다.
2.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닭 등)와 생선을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3. 먹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3일 이내 먹는다.
4.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를 1~2일 간격으로 소독한다.
5. 생고기를 사용한 도마에 다른 음식을 놓을 때 도마는 세제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로 씻은 후 락스 등 소독제를 희석하여 소독 후 사용한다.
6. 그릇은 바로 물(뜨거운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닦은 후 건조시킨다.
7. 고기류와 생선을 취급한 손은 바로 물(뜨거운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닦는다.
8. 냉동된 고기, 닭, 생선 제품은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다.
9. 부엌 조리대는 세제, 물 또는 행주로 닦은 후 소독제(락스 등)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10.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2회 이상 충분히 닦아서 먹는다.

· 문의: 덕양구보건소 ☎ 961-2555
일산구보건소 ☎ 961-2565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풍물전수 교육

- 교육기간: 2005. 7. 14. ~ 12. 31. (매주 화, 목요일 10:00~12:00)
- 교육장소: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풍물교육실
- 교육인원: 약 20명(만 55세 이하)
- 교육내용: 풍물놀이(뿔과리, 장구, 징, 북, 제금, 소고) 기초반
- 교육단체: 고양시 생활개선회 우리가락연구회(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여성단체)

· 문의: 고양시 생활지도과 ☎ 961-2574

고양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고양시가 자치경영부문 최고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덕양구 소식

무료 건축 및 건강체코 상담의 날 운영

덕양구는 주민을 위하여 '무료 건축 및 건강체코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건축 관련 절차를 잘 몰라 답답했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상담 날에 덕양구청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무료 건축 상담의 날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덕양구 시민과 지적민원실
- 상담인: 건축사 이해운 외 1명
- 상담내용: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무료 건강체코 상담의 날

- 일시: 둘째, 네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덕양구 시민과 일반민원실
- 전문 상담인: 명지병원 의사, 간호사 각 1명
- 상담내용: 혈압 및 당뇨 등 건강 체크 및 상담

· 문의: 덕양구 시민과 ☎ 961-6133

일산동구 소식

2005일산구민자치대학 안내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신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일산구민자치대학의 강의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의기간: 4월 22일 ~ 11월 4일 (7·8월 휴강, 20회)
-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20분)
- 장소: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
- 대상: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가비: 무료
- 강의내용

강의일	강사명	강의분야	강사약력	강 의 제 목
9. 2 (금)	고승덕	의식개혁	변호사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9. 9 (금)	류육현	풍수지리	한국수맥학회 중앙회장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수맥

※강사 및 강의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총무과 ☎ 900-6051

일산서구 소식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실시

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뿐 아니라, 한 장소에서 모든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운영개시일: 6월 9일 이후 연중
- 발급장소: 구청 시민과 민원실내 (2층)
- 발급대수: 1대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일산2 단현, 주업1동, 농협하나로마트

○ 발급가능민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 등기부등본발급: 7월 중

⇒ 대법원 등기부등본 발급기관 승인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

· 문의: 시민과 ☎ 930-6813



의원소개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의장 권 봉 원
덕양구 원신·홍도동

(사무실) 031-961-2500
H·P:011-9055-4300
E-mail:kbwon48@hanmail.net



부의장 박 순 배
덕양구 고양동

(사무실)031-963-7531
H·P:017-260-3220
E-mail:psb3220@hanmail.net



의회운영위원장 이 재 황
덕양구 성사2동

(사무실)031-964-2020
H·P:011-354-9292
E-mail:lih0113549292@daum.net



자치행정위원장 양 효 석
덕양구 효자동

(사무실)02-381-5010
H·P:011-686-5010



사회산업위원장 김 범 수
일산구 백석동

(사무실)031-902-8141
H·P:016-370-8141
www.gykbs.net
E-mail:gykbs@goyang.go.kr



도시건설위원장 최 경 식
덕양구 행신1동

(사무실)031-965-5015
H·P:018-303-8510
E-mail:cks080@naver.com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김 태 임
일산동구 마두2동

(사무실)031-905-3454
H·P:016-9237-3457
E-mail:chamwife@hanmail.net



강 영 모
일산서구 일산3동

H·P:017-239-0310
www.home.naver.com/
gyckym
E-mail:gyckym@naver.com



길 중 성
일산서구 탄현동

(사무실)031-977-3313
H·P:019-575-1961
www.kiljs.pe.kr
E-mail:ja@kiljs.pe.kr



나 공 열
덕양구 창릉동

H·P:011-470-5090



엄 기 창
덕양구 관산동

(사무실)031-962-2261
H·P:017-351-8066
E-mail:ecoumkichang@hanmir.com



이 봉 운
일산서구 송포·송산동

H·P:011-287-0045
E-mail:leebw53@hanmail.net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이 영 훈
덕양구 능곡동

(사무실)031-973-9800
H·P:011-397-1492



정 윤 섭
덕양구 행신2동

(사무실)031-979-3333
H·P:011-347-1211
E-mail:yunsup347@hanmail.net



조 문 환
일산동구 고봉동

(사무실)031-977-4488
H·P:017-220-5484

의회운영위원회

- 간사 :이영훈
- 위 원:강태희,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나공열, 박중기, 이창원

- 의장실 965-5012
- 부의장실 965-5013
- 의원실 965-5015
- 사무국장 965-5014
- 전문위원실 967-8049
- 의정담당 965-5016
- 의사담당 961-2522
- 의회 홍보담당 961-2523

사 회 산 업 위 원 회

					
김 해 련 덕양구 화정2동 (사무실)031-921-7001 H·P:016-758-2486 www.kimhr.pe.kr E-mail:kimhr1109@hanmail.net	김 정 무 덕양구 화전·대덕동 (사무실)02-3159-8778 H·P:011-277-9973	김 현 중 일산동구 식사·풍산동 (사무실)031-965-5012 H·P:011-233-6770	박 윤 수 일산동구 마두1동 (사무실)031-907-6785 H·P:011-796-4055 E-mail:pys6785@hanmail.net	박 종 기 덕양구 행신3동 (사무실)031-978-6003 H·P:018-281-2351 www.jkpark.or.kr E-mail:dc2351@hanmail.net	배 철 호 덕양구 행주동 H·P:011-9271-2345

사 회 산 업 위 원 회

					
심 규 현 일산서구 대화동 H·P:017-230-9966 E-mail:skhsaga@orgio.net	이 택 기 덕양구 주교동 H·P:011-359-5961 E-mail:sernong@hanmail.net	김 달 수 덕양구 화정1동 (사무실)031-921-7001 H·P:016-220-0089 www.dalsu.pe.kr E-mail:kimds@ktem.or.kr	강 태 회 덕양구 신도동 (사무실)02-381-6455 H·P:011-417-4666 www.kangtaehee.pe.kr E-mail:uiop4777@hanmail.net	김 경 태 덕양구 성사1동 (사무실)031-967-7373 H·P:011-355-7373 E-mail:sungsal@hanmail.net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김 유 임 일산서구 주엽2동 H·P:010-4655-7729 E-mail:kyouim@hanmail.net	박 복 남 일산동구 정발산동 H·P:016-352-3344	박 윤 희 일산서구 주엽1동 (사무실)031-813-2697 H·P:011-9866-2697 www.uny.pe.kr E-mail:uny@uny.pe.kr	이 건 익 일산동구 장항1·2동 (사무실)031-904-4005 H·P:011-775-4384 E-mail:janghang12@hanmail.net	이 창 원 일산서구 일산1동 H·P:011-290-3218 www.infocommunity.co.kr/kw E-mail:ichango@hanmail.net	최 성 권 일산서구 일산2동 (사무실)031-976-1357 H·P:017-360-4397 E-mail:love0531sk@hanmail.net

편집후기

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도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발품을 팔아서 의회를 방문하거나,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 의회가 의회소식지를 창간하면서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채우는 새로운 가교를 개설하게 되므로 자세한 소식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막상 소식지를 주민들의 편에서 제작하려고 기획을 해도, 의회의 주관적인 정보 제공에 몰입

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 지역 민간 전문인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노력하는 일에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성원과 봉사로 고양시의회 소식지 창간호가 출간되어, 우리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요람으로 탄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의회지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가지시고, 내용에 대한 엄한 질책과 다정한 충고가 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실한 자세로 차근차근히 일하고자 다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양의정소식지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 공모기간: 2005. 8. 1 - 8. 20 (20일간)
- 모집인원: 3명 · 입가: 2년
- 자격요건
-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양시 거주자 중
- 원고 작성능력이 뛰어난 만 25세 이상의 시민
- 기능
- 편집위원회의 기획의도 및 관심분야의 원고 작성
- ※ 원고 제공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응모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습작품(원고지 5매이상) 작성
- 팩스 : 031) 967-8045
- 이메일 : jaewoncho@goyang.go.kr
- 우편 : (우) 412-701,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 고양시의회사무국 의회홍보팀
- 당선자 발표 : 2005.8월 중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www.goyangcouncil.go.kr)에 발표
- 문의처: 고양시의회 의회홍보팀(961-2523)으로 문의

의회방청을 해 보세요!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합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사무국 (전화:96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기

- 정례회:

제 1 차 정례회 7 월

제 2 차 정례회 11 월 · 12 월

- 임시회: 필요시

수시 개최(45일 이내)

· **방청방법:**당일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하반기 의사일정

월별	회 수	회기명	회기(일수)	주 요 처 리 안 건	비 고
9 월	제 109 회	임시회	9. 6~9. 14 (9 일간)	· 안건처리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정)	추석연휴 (9. 17~9. 19)
10 월	제 110 회		10.20~10.27 (8 일간)	· 안건처리 · 2005년도 행정감사대비 현장확인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1 월	제 111 회	제 2 차 정례회	11.21~12.16 (26 일간)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6년도 예산안 심의 ·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 2004~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국내연수 (11월초순)
12 월	제 112 회	임시회	12.20~12.27 (8 일간)	· 안건처리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議

의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세요!



고양시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의사일정, 의정활동, 회의록, 의원소개, 민원계시판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고양시의회의 대외적 홍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goyangcouncil.go.kr>